이황, 도산십이곡 전문 분석

많은 교재들에 수록은 되었으나, 12수로 이루어진 전문은 아니다. 이 중에 중요한 몇 수가 빠져 있다. 여기에서는 전문에 대한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제1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료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삶의 자세. 달관의 경지를 나타낸다.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료.
'어떠하료'의 반복. 강조와 더불어 율격의 형성에 기여한다.
초야우생 : 초야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화자 자신을 지칭한다.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무슴하료.
천석고황 :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마음을 낫지 않는 고질병에 비유.
고쳐 : 바꾸어
천석고황을 바꾸지는 않으리라는 삶의 태도이다.
즉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겠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제2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자연과 더불어. 대구적 표현이다.
'풍월'은 의인화.
연하는 연기와 놀, 풍월은 바람과 달이다. 모두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적인 표현이다.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네
병으로 늙어간다는 진술을 늙어가는 인생의 고뇌를 표현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순리대로 늙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고져.
허물'은 도덕적, 학문적 허물을 의미할 것이다.

<제3수>

순풍(淳風)이 죽다하니 진실로 거즛말이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고 하지만 진실로 거짓말

인성(人性)이 어질다하니 진실로 올흔말이
사람들의 품성이 어질다고 하는데, 진실로 옳은 말
초장과 중장은 대조적이며 대구적이다.

천하에 허다 영재(英材)를 속여 소겨 말슴할가.
세상에 그 많은 뛰어난 사람들을 (내가) 속여서 말하리까.
퇴계가 추구했던 성리학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본성에 있어서 높은 도덕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성선의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4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듣기 됴해
난초가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아.
난초가 듣기 좋다는 표현으로부터 감각의 전이를 이끌어 내는 해석도 있으나, 좀 무리가 있다.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기 됴해
하얀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아.
초장과 대구적이다. 초장과 중장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잊지 못하얘
이 가운데에 저 아름다운 한 분을 더욱 잊지 못하네.
피미일인 : 임금을 지칭한다.

<제5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로다.
산 앞에 대 있고, 대 아래에 물 있구나.
대 : 높고 큰 것을 두루 칭한다. 여기에서는 높고 큰 바위 정도를 의미한다.

떼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초장과 중장은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 혹은 탈속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지은이인 퇴계 이황의 삶을 생각한다면 순수한 학문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떻다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마음 두는고.
어찌하여 희고 깨끗한 흰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두는고.

여기에서 '교교백구'에 대한 해석은 두 갈래이다. 곧 이곳에 은거해 있는 화자로 보는 입장도 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잇다. 그러나 '멀리'는 공통적으로 세속적 세계나 벼슬길, 즉 정치적 공간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종장은 그런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경계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내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수>

춘풍이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고, 달이 대에 가득하구나.

사시가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똑같구나.

하물며 연비어약(鳶飛魚躍)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긋이 있을꼬
하물며 솔개가 날고 물고기 뛰며, 달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햇살이 세상에 비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어느 다함이 있겠는가.

우주와 세계가 다 그 본성을 다하는 가운데 인간의 삶과 하나가 된 조화로운 상태를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제7수>

천운대(天雲臺) 돌아들어 완락재(玩樂齋) 소쇄(瀟灑)한데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재가 정갈한데
천운대는 지은이가 당시 은거하여 학문에 정진하던 도산서원 양편의 산기슭을 지칭한다.
완락재는 도산서원 안의, 일종의 도서관으로 학문을 닦던 공간이다. 완락재가 정갈하다는 것에는 학문에 정진하는 일이 그만큼 순수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만권생애(萬券生涯)로 낙사(落事)도 무궁(無窮)하얘라
학문하는 삶에 즐거운 일도 끝이 없구나.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무슴할꼬
이 가운데 오가며 누리는 풍류야 말하여 무엇하리오.

<제8수>

뇌정(雷霆)이 파산(破山) 하여도 농자(聾者)는 못 듣나니
천둥소리가 산을 깨듯이 커도 귀머거리는 못 듣나니

백일(白日)이 중천(中天)하여도 고자(瞽者)는 못 보나니
해가 중천에 있어도 장님은 못 보나니
초장과 중장은 대구적

우리는 이목(耳目) 총명(聰明) 남자(男子)로서 농고(聾瞽) 같디 마로리.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사람으로서 귀머거리나 장님 같지 아니 하리라.

지혜로운 삶의 다짐인데, 그러한 삶은 학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주제적인 정서는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면학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제9수>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 : 지은이를 포함한 유학자들이 따르고자 했던 성현들이다.

고인(古人)을 못 봐도 녀던 길 앞에 있네
고인을 못 봬도 가시던 길 앞에 있네.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어쩔꼬
가시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이할꼬.

연쇄법, 혹은 연쇄적 구성이라고도 한다. 초장의 끝을 중장의 처음이, 중장의 끝을 종장의 처음이 물고 있다.

성현들을 따라 학문과 인격 수양에 힘쓰겠다는 다짐이다.

<제10수>

당시(當時)에 녀던 길 몇 해를 버려 두고
당시에 가던 길 몇 해를 버려 두고
당시에 가던 길 : 순수하게 학문에 정진하는 삶을 의미한다.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온고
어디에 가서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 왔을꼬
설의적인데, 여기에서 '어디'는 벼슬길이다.

이제나 돌어오나니 딴 데 마음 마로리
이제야 돌아왔으니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 하리라.

다시는 벼슬길 따위에 마음 두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이다.

<제11수>

청산(靑山)은 어찌하여 (萬古)에 푸르르며
푸른 산은 어찌하여 늘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어찌하여 주야(晝夜)에 그치지 아니난고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늘 그치지 아니하는고.
여기에서 제시된 자연은 일관성을 드러내고 있는 교훈적 대상이다.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우리도 (흐르는 물을 교훈 삼아) 그치지 말고 (푸른 산처럼) 늘 푸르리다.

여기에서 자연은 풍류의 공간이 아니라 교훈적 대상이다. 자연을 교훈 삼아 변치 않고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면학의 다짐이다.

<제12수>

우부(愚夫)도 알며 하니 그 아니 쉬운가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서 하니 그 아니 쉬운가.

성인(聖人)도 못다 하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성인께서도 못다 하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학문의 세계란, 시작은 쉬우나, 그로부터 궁극적인 진리를 알아내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라라.
그와 같은 학문에 정진하는 가운데에, 늙는 줄도 모르겠구나.
학문에 정진하는 삶에 몰입한 경지를 노래한 것이다.